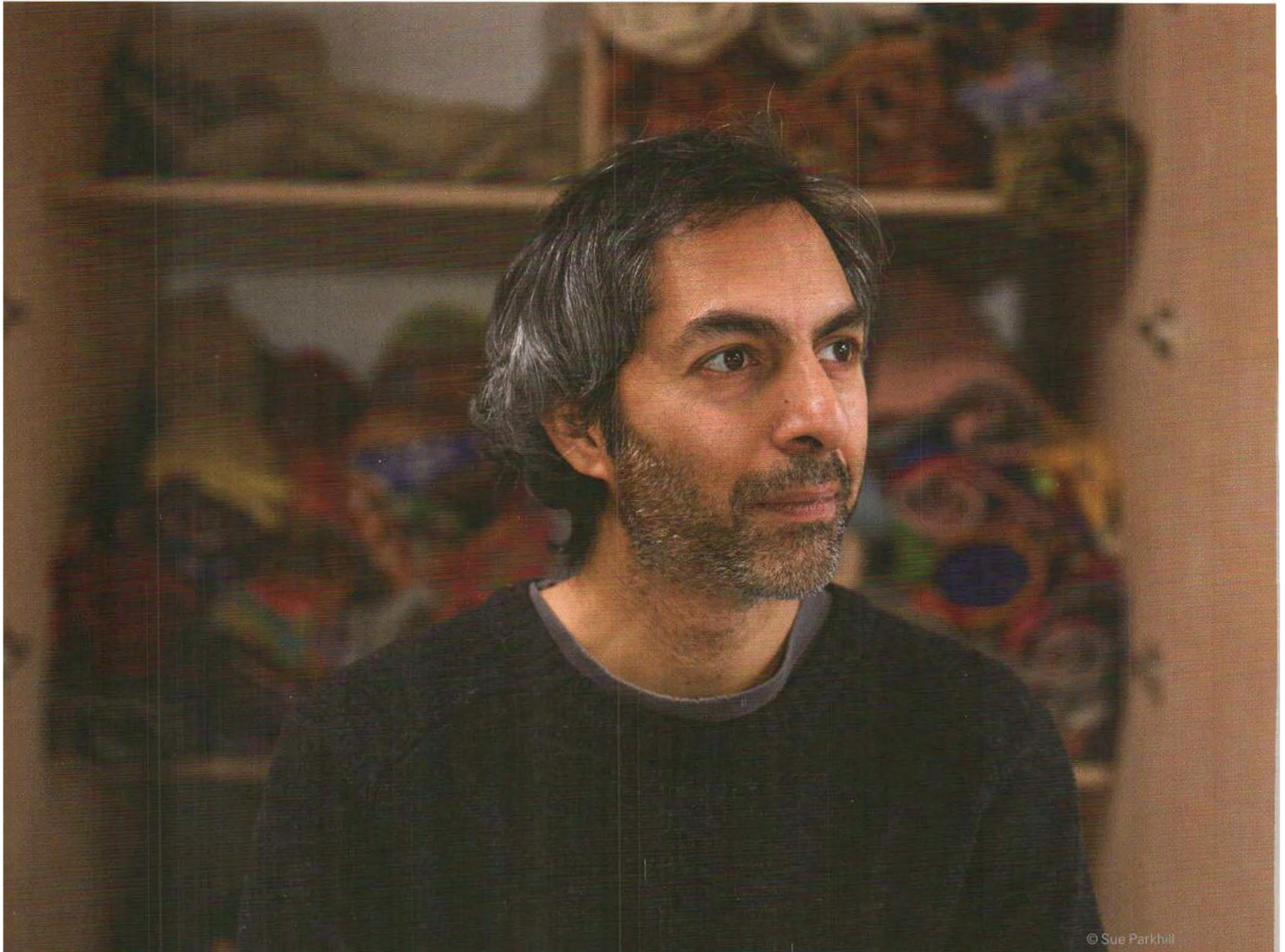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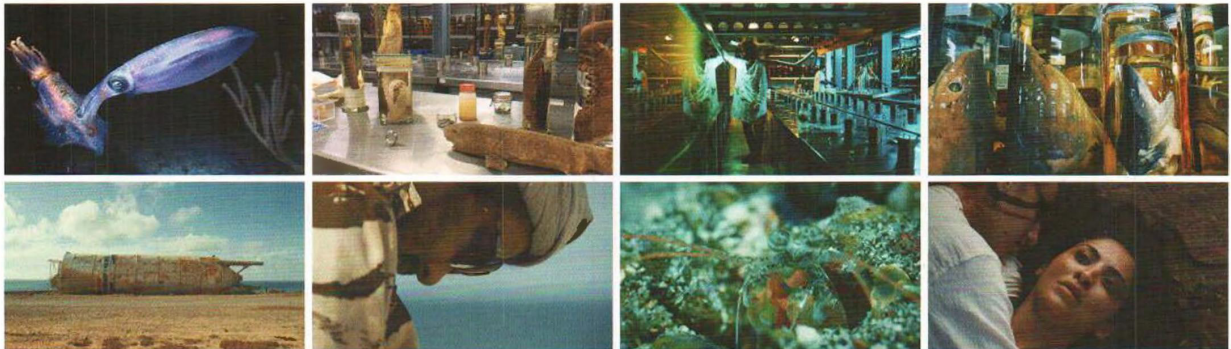
WELCOME TO KOREA



© Sue Parkhill

Shezad Dawood

LEVIATHAN ON SUNSPOTS AND WHALES 9.1-11.4 바라캇 서울



세 개의 전시, 그리고 <리바이어던>



셰자드 다우드 Shezad Dawood

1974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했다.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과 영국 왕립 예술학교에서 수학한 후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런던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첫 전시 <Shezad Dawood & Friends>를 포함해 현재까지 25회 이상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기획전과 스크리닝에 참여했다. The Abraaj Group Art Prize(2011), Aesthetica Short Film Festival(2015) 등에서 수상했고, 2012년에는 The Jarman Award 최종 후보자 10인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위 2018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미래를 위한 도시(Cities of the Future)> 2010 courtesy of Timothy Taylor, London, Chemould Prescott Road Jhaveri Contemporary, Mumbai and HE RO, Amsterdam

왼쪽 페이지

위 <Leviathan Cycle, Episode 1: Ben(production still)> HD video 12분 52초 2017 courtesy of the artist and UBIK Productions 아래 <Leviathan Cycle, Episode 4: Jamia(film still)> HD video 10분 36초 2017 courtesy of the artist and UBIK Productions

셰자드 다우드는 2018년 가을에 시작되는 한국 동시대미술의 '하이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할 작가다. 그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광주비엔날레와 송은아트스페이스 그리고 바라캇 서울, 새로 문을 여는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러리(11월 정식 개관 예정)에서 동시에 전시를 한다. 광주비엔날레에서는 클라라 킴이 기획한 <상상된 국가들(모던 유토피아)> 섹션에서 근대 서구와 동양의 미술, 건축, 철학이 상호 침투하면서 만들어낸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해 다룬다. 작품 <Cities of the Future>(2010)와 <Anarchitecture>(2016)를 통해 르 코르뷔지에의 '찬디가르(Cities of the Future)'와 체코 출신 건축가 안토닌 레이먼드가 폰디체리에 건립한 'Galdonde'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서구 모더니즘이 어떻게 현지의 문화적 기호들과 상호 통합적 관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줄 것이다. 송은아트스페이스는 8월 30일부터 영국 델피나 재단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델피나 인 송은: 파워 플레이>라는 제목 아래 상향된 국가로서의 전시를 개최한다. 다우드는 이 전시를 위한 영상작품 <Towards the Possible Film>(2014)에서 모로코의 시디 이프니(Sidi Ifni)에 위치한 레그지라(Legzira) 해변의 역사와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들에 대해 초현실적인, 심지어 우주공상과학물과도 같은 서사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같은 날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모은하는 개인전 <리바이어던: 흑점과 고래>에서는 17세기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쓴 동명의 정치철학서에 등장하는 바다 속 거대한 괴물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보여준다. 이 보이지 않는 괴물 '리바이어던'은 국가와 그 존재방식에 대한 성찰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상과 우주와 바다, 이 세 공간을 아우르는 한 작가의 전시가 동시에 전개되는 것이다.

1974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인으로 성장한 다우드는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다. 그의 작품세계는 그의 출생과 성장기 문화적 배경만큼이나 다층적이다. 작가가 자주 인용하는 일화를 통해 그의 미로에 가까운 세계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013년 작가는 어느 출판사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청탁받는데 이 글을 2년 가까이 끌면서 엄청난 양의 원고를 생산하게 된다.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마다 (예컨대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맑시스트와 파시스트의 입장을 수시로 오가는" 등) 수없이 많은 시점으로 분기해나가는 그의 글을 보고 출판사 담당 편집자는 이 원고들을 책으로 만드는 대신 작품을 위한 서사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태어난 것이 그의 대표적 프로젝트인 <리바이어던>이다. 동시대미술의 많은 작가처럼 다우드 역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다소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서사 형태의 주제가 정해지면 페인팅, 조각으로부터 VR, 3D 프린팅, 온라인 드라마를 비롯하여 학술 심포지엄과 과학적 조사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이 함께 전개된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당시 팔라치나 카노니카(Palazzina Canonica)와 포르투니 팩토리(Fortuny Factory)에서 열린 전시에서 그는 해양학자, 해양난민부검전문가,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사회학자, 탐사전문가, 국경없는 의사회 등의 전문가들과 개별적인 토론회를 가졌다.

이렇듯 매체와 소재를 중황으로 가로지르는 비선형적 구성방식에 대해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자신의 관심사가 특정한 대상이 아닌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 발견되는 잠재적 연결의 가능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조약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람페두사(Lampedusa) 섬으로 가다가 배가 뒤집혀 모두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그는 이들의 향해 경로상에 있는 수중 돌출부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열이 조류의 변화를 야기해 매우 위험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점에 착안한다. 그는 해양학과 이주, 태양의 흑점 폭발과 전통적 직물공예, 비-가시적이며 초국가적인 권력과 생물학 등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실들 간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매체의 스펙트럼 역시 이러한 사실들의 배치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진다. 즉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번 새롭게 일어나는 독해이다. (나는 다우드에게 이것이 "분열적 (schizophreniac)"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이 단어를 인용한 적은 없으나 그 역시 상당히 공감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분열을 통해 다우드는 새로운 서사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그것들의 배후를 추적하며 미담의 관계망을 가시화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설명에서도 드러나듯 그의 작품세계는 독해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동시에 열리는 이번 세 개의 전시가 한국의 관객들에게 이 세계적 예술가에 보다 깊이 있고 친숙하게 접근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진상 계원예대 교수